

•특집 /  
'88진단

• '88년을 보내며

## 육가공 업계를 돌아본다

그간 타식품산업 일반에 비해 높은 신장을 하여왔던 육가공업계는 올해도 신장면에서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즉, 30%에 달하는 육가공품의 외형적 신장은 팔목할 만한 고신장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셈이다.

내용면인 제품 구조상으로 보면 어육연 제품인 혼합 소세지 제품은 신장이 정체되고 있는 반면, 돈육을 주 원료로 하는 축육제품의 신장이 두드러져 육가공산업의 신장은 곧바로 축육제품의 신장과 직결되는 셈이다.

이러한 제품 구조상의 변화는 그간의 육가공시장 수요측면과 소득수준 제고에 따른 소비자 욕구에 비추어 볼 때 향후에도 지속내지는 제품간 신장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의 축육제품 고신장의 이면에는 시장 확대를 위한 업계의 치열한 가격위주의 경쟁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87년이후 업계의 과도한 시장경쟁으로 인해 기존제품의 경우 거의 상시개념의 10%~20%에 달하는 할인 판매를, 새로 시장에 출시되는 신제품의 경우에는 기존 동종유제품 가격수준의 80 밖에 안되는 시장가격으로 업계간에 경쟁적으로 시장 출시하게 되어 전반적인 육가공품의 매출액 신장은 매출량에 훨씬 미달하는 결과를 빚었다.

자유시장 경쟁의 원리에 따라 양질의 제품을 찐가격에 소비자에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나, 그간의 육가공업계가 취약한 경영구조로 지속적 누적적자를



하 대 중  
(제일제당 육가공 기획실장)

계속하고 있고, 이러한 누적적자로 인한 취약한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개선하지 않으면 육가공업 그 자체의 존폐여부로까지 악화될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과도한 시장경쟁은 근본적 구조개선을 위한 시장기반의 안정적 기반 구축이라는 관점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 보여진다.

다행히 '87년 하반기 이후 국내의 원료돈가가 상대적 안정추세를 보여 이러한 제품하향 가격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하향된 가격구조가 돈가 상승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가 향후의 육가공업의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줄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입자유화에 따라 수입된 해외저가의 저가의 육가공 캔제품이 국내 캔제품 시장을 가격측면에서 교란시킴으로써 국내육가공 캔제품의 가격은 수입자유화 이전에 비해 30% 수준이나 떨어져 국내 캔제품 생산업체의 경우 캔제품을 생산하면 할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 되었다.

수입자유화가 개시된 '87년 하반기에 비해 '88년들 어 이러한 캔제품의 수입이 확대추세에 있어 국내캔제품 시장의 시장가격 교란은 더욱 심화되어 국내업체의 위축을 초래하였다. 종래 국내생돈가 하락시 육가공업계에서 돈육의 비축수단으로 활용하였던 캔제품의 돈육비축 기능이 위축 돈가하락시의 돈가조정의 완충기능이 약화될 것이 우려된다.

그러나 금년의 긍정적인 면은 육가공업계에서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국내돼지의 규격에 대한 양돈사양가 관심의 고조와 이해폭이 제고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국내의 육가공업체 및 포장육업체의 대일본 돈육수출이 크게 증대되어 수출용 규격의 원료돈 확보에 대한 관심이 제고된 점이다.

생체중량 100kg 이상이라는 수출규격돈이라는 개념은 육가공업의 입장에서는 제품 가공원료로서 당연히 전제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내의 생육시장 유통의 특성때문으로 간단히 무시해 왔던 것이

'88년 들어 돈육의 대일수출이 급격히 증가 이에대한 관심이 종전에 비해 대폭제고 이해의 폭이 넓게 형성되고 있음을 양돈업 및 육가공업의 균형발전이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 돈육시장의 악화로 인한 수출단가의 하락 및 원하의 절상으로 인해 수출돈육의 손익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상황보다 수출여건이 악화될 경우 대일 돈육수출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나, 이러한 규격돈의 사양 지향은 대일수출에 감소하거나 중단되어 지더라도 포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나 향후 공히 양돈업의 최대 실수요자는 일본의 수입업자가 아닌 국내 육가공업계이기 때문이다.

〈표1〉 국내 사육두수 및 육가공 사용장

| 항 목        | '86년      | '87년      | '88년      |
|------------|-----------|-----------|-----------|
| 전국사육두수(천두) | 3,350     | 4,260     | 4,600     |
| 출하두수(천두)   | 6,100     | 7,700     | 8,300     |
| 정육생산량(천톤)  | 230(100%) | 290(100%) | 320(100%) |
| 육가공사용량(천톤) | 13(5.7%)  | 18(6.2%)  | 24(7.5%)  |
| 수출사용량(천톤)  |           | 3(1%)     | 6(1.9%)   |

'89년의 경우 금년의 선거, 올림픽 등의 사회적요인과 해외부문의 통화확대 등과 같은 경제적요건 등 금년의 외형적 신장의 주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어 금년 수준보다는 다소 안정폭이 둔화되겠지만, 20% 내외의 신장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러한 신장의 전제는 국내원료돈가가 지속적 안정세를 견지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육가공업계로서는 보다 더좋은 품질의 제품 공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양돈업계로서는 양질의 규격돈 생산에 힘을 기울여 육가공업계 및 양돈업계 공히 품질향상과 원가절감에 힘을 기울여 지속적으로 상호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